

90. 3. 16

# 한겨레 논단



윤 정 모

지금 경기도 곳곳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90년도 팀스피리트를 환영합니다.” 해마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이 혼란. 우리 면에도 군용트럭과 지프차, 무장한 군인들이 활보하고 다닌다. 몇해 전 그들이 우리 마을에 주둔했던 당시 입은 피해들이 떠오른다.

설마 올해야 또 주둔하진 않겠지.

창문이 덜덜 떨리고 전기가 왔다갔다 하더니 거대하고 시커먼 미군 헬리콥터가 날아와 우리 집 앞 들에 내려앉는다. 한대도 아닌 여러대. 어찌나, 아까 마을 조무라기들이 저 들에서 나물



나 자물을 실은 그런 배일까. 아니었다. 그 군함들이 바로 핵무기적재함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식인들은 남한과 핵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논의하려고 그 대학에 모였던 것이다. 그것도 4박5일이나 함께 숙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진 벨로는 제3세계와 저강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핵기지와 미군의 역할을 이야기했고, 그밖에 여러 사람들도 핵과 핵 사용자의 불안전성을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핵이 아시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를, 또는 핵을 나르는 군함이 만에 하나 태평양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인근 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끼칠 피해 등, 태평양 공동안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펼쳐지고 있는 팀스피리트까지도 연사들은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어느 흑인 여교수는 미국 정부가 주는 스칼라십에 대한 내막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국화와 칼>까지도 미국의 군사지배를 위한 공작으로 돈을 받고 썼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했지만 그 모든 발표는 미국이 세계지배를 위해 쓰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폭로였다.

또다시 헬기들이 날아와 그 자리에 내려앉는다. 들과 야산이 진저리를 치는가 했더니 우리 집도 몸살을 앓듯 우르르 흔들린다. 저 헬기도

## 남들은 우리를 걱정한다는데

을 캐며 놀았는데, 나는 얼른 창가로 간다. 겨우 내 비바람에 작은 허연 비닐조각들이 헬기의 돌풍에 흩날린 새들처럼 날아오른다. 다행히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밭둑 아래로 몸을 피하고 저마다 고개를 빼든 채 확회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구경하고 있다. 헬기가 부웅 떠오른다. 아이들의 가벼운 몸도 벗겨져 나뭇잎처럼 나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해 하다가 문득 지난해의 일을 생각한다. 한 반도를 걱정하던 동포들의 얼굴.

작년 9월, 미국 시애틀 대학에서 ‘90년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안보회의’가 있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수, 학자, 반핵운동가들이 모여 주제발표를 하고 토의를 한다가에 나도 참석해 보았다. 흰머리, 검은머리, 노랑머리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앉으며 나는 앞을 쳐다보았다. 대학교수라는 미국인 주최자가 한 귀퉁이에 서서 주요발표 내용을 소개했다. 연단 정면 벽엔 커다란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이상했다. 미국과 태평양과 우리나라만을 강조한 그림. 태평양 한가운데엔 여러 척의 검은 군함까지 그려져 있었다. 그 군함들은 왜 모두 남한으로 향하고 있을까. 쇠고기

팀스피리트 훈련중인가. 그런데 어쩌서 허구한 날 우리집 앞에만 내려앉는가. 그 요란한 훈련은 이렇게도 오래도록이나 하는 것인가. 그래, 작년 늦가을부터 저 헬기들은 계속 날아왔다. 다섯대가 한 조가 되어 사흘이 멀다 하고 날아와 내려다 뚫다 해댔다. 마치 우리마을을 포위하듯이. 그럼 우리 주민은 ‘적’인가. 아니라면 60여 가구가 웅기쭈기 모여사는 이 자연부락 앞에서 저런 훈련을 해도 되는 것인가.

공포로 식은땀이 흐르다가 문득 부끄럽다. 전 세계인들은 미국 한가운데로 들어가 미국의 군사정책을 비판하고 인류의 목숨을 걱정하는데, 1천개도 넘는 핵탄두가 들어와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거듭되는 훈련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 구경뿐인가. 대대적인 환영까지 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도 초인적인가. 불끈 오기가 치민다. 그래, 내일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자. 오산에 있다는 그 미 공군부대로 가서 말이라도 해주자. 용인군 외사면 석천리 황새울마을은 전혀 훈련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작가>